가미가제(신의 바람, 神 風)

사도행전 28장 11절~31절

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12.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가미가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 1274년 고려를 정복한 몽고군 함대가 여몽연합군을 결성하여 일본 규슈 섬 남쪽으로 침입해 왔을 때 이상한 태풍이 불어 이들의 상륙을 막았습니다. 1281년에 또 다시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도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어 이들을 몰아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의 침략이 실패로 끝난 뒤에는 몽고군은 다시 일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일본인들은 대륙의 정복자 몽고로부터 일본을 지켜준 이 바람을 신이 보내 준 바람, 즉 가미가제(신풍, 神風)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에 연합군이 상륙하고 1945년에는 드디어 오키나와가 점령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 일본 군부는 연합군의 진격을 막는 수단으로 가미가제라 이름 하는 특공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몽고군을 막아 주었던 신의 바람을 이번에는 의도를 가지고 인공적으로 일으키려 했던 셈이지요. 가미가제 독고타이 즉 신풍 특공대는 연령이 20세 정도인 자원병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7세에서 24세 정도의 젊

은 조종사들은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을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연합군 함대에 전투기 동체(胴體)와 함께 부딪치는 무모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황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라는 구호 아래 이 젊은이들은 탑재 가능한 최대치인 500kg이 넘는 탄약이 실린 전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연료는 출발지 가고시마에서 오키나와까지 도착할 분량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즉, 돌아오기 위한 연료는 없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가미가제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이 혹시 중간에 도망치거나 적에게 귀순하는 사태를 방지하려고 비행기에서 이륙하는 기능만 남기고 착륙하는 기능을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청년들에게 전투기 1대에 미 군함 1대를 폭격할 것을 명령했고 가고시마 지역에서만 이 명령을 따라 10여 차례의 출격에 1024명의 젊은이들이 참전을 했고, 그중 11인은 한국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가미가제의 공격으로 30척 이상의 연합군 군함과 350척이 넘는 전함이 피해를 입었으나 주요 목표물인 항공모함은 침몰시키지 못했다고 해요. 세계 전쟁 사상 유래가 없는 가미가제는 연합군에 입힌 실질적인 피해보다는 연합군에 대한 저항의 상징적 의미가 크게 부각 되어 일본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후5:8,9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롬14:7,8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오늘 본문이 기록한대로 AD 61년경 로마에 도착한 사도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67년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아래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나 죽으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로마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끝난 사도바울의 생애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가미가제 특공대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사도바울은 성령이신 신의 바람에 의해 쫓기듯 삶을 살았습니다. 달리말하자면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불고 있는 신풍의 사인(Sign)이었습니다.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는 바람을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잎을 보며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되돌아갈 여분의 기름도 없고 착륙장치도 제거 된 전투기에 500kg이 넘는 폭탄을 싣고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하는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대제국의 수도 로마를 향해 십자가 복음 폭탄을 안고 날아 들어가 부딪히고 장렬하게 전사한 영적인 가미가제 특공대였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는 다시는 이 땅위에서 다른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족과 기쁨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이 땅에 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랜딩기어를 생에서 온전히 제거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어떨 때 이 세상에 착륙합니까? 어느 경우에 이 땅에 찰싹 달라붙습니까? 이 땅위에서 내게 기쁨이 될 만한 일이나 사람이나 물건을 찾았을 때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하늘에 계신 주님 말고는 이 땅위에서 기쁨의 이유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나머지 생애 동안 더 이상 사도바울의 마음은 이 땅 위로 내려오기 위한 착륙 장치가 없었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처럼 착륙장치 없이, 다메섹 도상 이전의 세상적인 엘리트의 삶으로 돌아갈 연료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만 보며 돌진하다가 대제국의 수도 로마라는 항공모함에 충돌하고 전사한 것입니다.

3)　　오늘 본문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세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도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과 도착 후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 그리고 구류중인 신분으로 셋집에서 지내던 2년 동안의 사역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선 유라굴로 광풍에 떠 밀려오게 되었던 멜리데 섬으로부터 로마까지의 여정을 별 다른 부연설명 없이 다급하듯 한달음에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로와 육로를 다 합쳐 7- 800km에 달하는 대장정입니다. 이 길고 긴 거리를 통해 진행된 여행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해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 여행 중인 사도바울 자신도 이 여행에 동참하여 여정을 기록하게 된 누가도 오로지 로마에 도착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마음이 로마를 향해 집중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른 관심이 다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마치 가미가제 특공대의 전투기가 미국 전함으로부터 빗발치듯 쏴대는 대공 포격 사이를 헤집으며 전속력으로 전함을 향해 날아 들어가는 순간 같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사도바울은 우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인용과 함께 2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세계의 중심도시 로마에서 십자가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향을 돌려 이방인들을 향할 것임을 선언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통해 공격목표가 다시금 수정되고 그 목표를 향한 정조준이 일어나 셈인 거지요. 마치 가미가제 특공대의 전투기가 미국 전함에 부딪히기 직전에 충돌의 파급효과를 최대한으로 크게 하기 위해 전함의 중심부로 전투기의 방향을 정 조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로마라는 전함에 충돌합니다. 그 충돌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30절과 31절 두 구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이처럼 신풍 특공대인 바울이 로마에 충돌하는 장면까지 만을 기록하고 끝이 납니다. 그 충돌로 인한 피해 규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답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제국은, 제국판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소수에 불과하던 때에 기독교 국가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로마제국은 뿌리 채 뽑히고 체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들어 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볼수록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슨 그렇게 가미가제 특공대의 무모하리만치 저돌적인 공격과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전투적 분위기라는 말일까? 이태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렇게 심각한 충돌 상황일가? 가는 곳 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따랐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4) 마지막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제국을 지탱하는 뿌리에 도끼를 들이 댄 것과 같은 의미 인 것을 처음에 누가 알아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제국이 당시와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길 바랐다면 결코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져서는 안 될 분이었던 것이지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있는 광대한 로마제국의 뿌리는 군사력으로 표현되는 힘이었습니다. 힘이 곧 진리요, 강자가 곧 법이라는 정신 위에 서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국 내의 평화는 힘에 의해 억압되고 평정된 평화이고 강자의 여유가 관용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의 평화였습니다. 폰투스의 파르나케스 2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로마 시민과 원로원에 보낸 승전보에서 율리우스 시저가 한 말 속에 로마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정신이 한 마디로 표현 되고 있지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가서 보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 그것이 로마요 로마의 정신이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로마제국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힘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장 대극점에 위치합니다. 십자가는 힘의 부재를 뜻하며, 패배와 낙오와 극단적인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패배자들과 낙오자들을 제국 내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로마 당국이 만들어 낸 형틀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처럼 힘과 승리 위에 서있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무력함과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주(主)로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제국 내에서의 삶에 질서를 불어넣어주는 가치체계의 개벽을 의미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힘을 기르고 강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시대정신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피하고 싶고 혐오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요. 그러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하여 살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한편으론 너무 터무니 없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뿐인 정신병자의 말이거나, 아니면 제국과 그 백성들의 삶의 체질과 운명을 전격적으로 뒤집어엎는 위협적인 말씀이란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후자 쪽으로 흘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말씀은, 이방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제국의 중심인 로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금 영적으로 볼 때 로마가 불길로 뒤덮이게 되는 가미가제의 공격을 감행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제국이 서 있는 정신적 근간을 허물어 버리는 폭탄이었습니다.

5)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도바울이라는 가미가제 특공대원의 전투기가 로마제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중심부에 충돌하여 불길이 치솟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 공격의 성과나 로마가 입은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언급 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내용적으로 보자면 불과 바람으로 시작해서 불과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불과 바람으로 묘사된 오순절의 성령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신풍의 역사는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십자가 폭탄으로 채워진 사도바울을 유라굴로 광풍이 되어 휘감아서는 마침내 이방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충돌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방 땅을 향한 가미가제 공격을 위해 사도바울의 손에 들려 있던 바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땅위에서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모든 삶의 현장이 가미가제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전함들입니다.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가치관을 향해 십자가 폭탄을 안고 돌격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돌격의 겉모습은 로마에서 온 이태를 셋집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의 모습처럼 평화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쟁입니다. 아니 반드시 전쟁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 때 착륙장치를 제거하고 이륙한다는 뜻이지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대해 십자가를 통해 이륙함과 동시에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아버지와 주님이 계시는 하늘에서만 찾을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한 다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랜딩기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

다. 그렇게 착륙 없는 이륙준비가 이루어지면 신의 바람이 내게로 불어 올 것입니다. 그 바람 타고 세상으로 나가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 어디서든 내 안에 있는 십자가 폭탄이 터져 세상의 가치들을 허물어 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가미가제, 신풍을 타고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폭탄을 안고 날아 들어가는 가미가제의 특공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도바울의 입에 담겼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